



⊗ 벤처기업 M&A 간소화

내년부터 벤처기업 합병(M&A)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신주와 구주 간 주식교환이 허용돼 벤처기업 합병이 보다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병시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제도를 도입, 기술거래소 등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신주와 구주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이 일시 금융차입을 통해 편법적으로 이뤄져 왔다.

아울러 합병 및 영업 양·수도시 주주총회 전후 2번 실시했던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주총 이전으로 단일화하고 소규모 영업 양·수도 시에는 주총절차를 생략해 합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병 및 영업 양·수도 절차가 간소해져 벤처기업 합병과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IT 벤처기업에 내년 3961억 투입

정부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성장활력을 위해 내년에 3961억원을 투입한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31일 응용기술개발 용자 지원을 비롯해 IT설비투자, IT산업기술 개발, 설비개발, IT시험·인증기반 구축 등에 총 3961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IT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의 절반이 넘는 2500억원을 응용기술개발 용자에 배분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 반도체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 중기청, 내년 중기기술 혁신 자금 2346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을 위해 총234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2094억원 보다 12% 늘어난 규모다.

중기청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국가 전체 예산안의 규모가 올해보다 2.1% 늘어난 균형예산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지원사업을 보면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신개발자금이 1101억원에서 1206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중소기업 제품 수출시 수입국이 요구하는 CE, UL, QS9000 등 유명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예산이 151억원에서 191억원으로 26% 증액 편성됐고, 열·냄새·분진·고온·고압 등 생산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인력유입 인프라를 구축하는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 예산이 174억원에서 19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방 중기청의 최신 시험연구 장비 구입예산이 15억원에서 35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40여대의 신형장비를 새로이 구입, 중소기업에 연중무휴로 이용·개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341억원→391억원), 경영컨설팅지원(49억원→60억원), 기업협동형 전략기술개발사업(20억원→25억원), 중소기업기술 경쟁력평가지원사업(12억원→14억원) 등의 예산도 증액 지원된다. 중기청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펼쳐 나가되 수도권보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산-학, 산-산 간의 공동기술 개발사업을 우대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